

북스

어린이 책꽂이



▲엄마의 슬픈 날=우울증을 앓는 엄마와 함께 사는 모나네 엄마가 왜 슬프고 슬픈지 고민하다가 자신의 탓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모나네의 일상을 통해 우울증 환자의 자녀가 겪을 수 있는 상처와 치유의 과정을 보여준다. 저자는 마음의 병을 가진 부모와 사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그들을 위해 썼다. <문학동네·8천500원>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1865년 출판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는 100년이 넘도록 꾸준한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물론 영화, 드라마, 연극, 뮤지컬 등으로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있다. 일러스트레이터로 찬사받고 있는 리처드 스토퍼의 아름다운 삽화가 보는 즐거움을 더했다. <어린이작가정신·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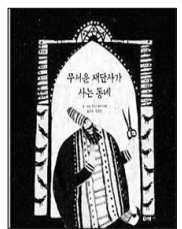
▲눈물바다=시험을 망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억울하게 혼나고, 우산도 없는데 비가 내린다. 자려고 누운 아이의 눈에서 저절로 눈물이 흐르는데 이튿날 아침 눈을 떠보니 사람들이 자신의 눈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다. 어른보다 더 울적해질 수도 있는 어린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준다. <세계적·9천800원>



▲손도끼를 든 아이='스켈리그'로 인기를 끈 영국의 청소년 소설 작가 데이비드 알몬드 의 작품. 가족과 행복하게 살던 블루는 갑자기 아빠를 잃고, 설상가상 동네 골목대장 호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 분노와 외로움을 느낀다. 블루는 상담교사의 권유로 '손도끼를 든 아이'라는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책과공니루·1만1천원>



▲이상해!=다양한 남녀 관계를 만들어낸 물고기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남녀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깨는 유쾌한 그림책이다. 암컷도 수컷도 아닌 몸으로 태어난 뒤 상황에 따라 성이 변하는 환동가리 등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물고기들을 찾아 우리 세상에도 다양한 삶의 모습을 그려 놓았다. <그림이야기·9천500원>



▲무서운 재단사가 사는 동네=을해 불로나 아동도서전에서 일러스트레이터 상을 받은 작품이다. 레자드씨가 당나귀를 타고 들어간 어느 동네 사람들은 재단사에게 번번이 웃음을 도둑맞는다. 그래도 동네 사람들은 재단사에게 웃음을 돌려달라고 말을 못한다. 레자드도 감쪽같이 당한다. 왜 그럴까? <리즐·1만원>



▲지구를 지키는 가족=환경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동화작가 김바다씨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환경 창작동화다. '지구지킴'으로 설립된 가상 세계라는 신선한 상상력에 환경 문제라는 현실적 요소를 결합한 독특한 동화다. 어린이들이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지구사랑 실천법들이 등장한다. <한림출판사·9천500원>

▲나는 감자='프랑스 감자'라는 전문 학술잡지 편집장인 도로테 부르제가 쓴 감자에 대한 지식을 담은 책을 한국의 상황에 맞춰 새롭게 기획·편집했다. 부록 '워크북·사교 속속토론·논술 마당'을 통해 책을 읽으며 알게 된 감자 이야기를 스스로 탐구하고 점검해보는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준다. <청어람주니어·8천800원>



'지식 @ 5'는 우리가 놓치지 않을 가치관을 다른 에피소드와 인터뷰를 소개하고 있다. '어떤 스트라이커의 1승'의 주인공인 축구선수 황선홍이 2002 월드컵 당시 환호하는 모습.

가슴으로 들려주는 20인의 이야기

지식 @ 5

EBS 지식채널 @ 지음



지난 2005년 첫방송을 시작한 'EBS 지식채널 @'은 단 5분 동안 방영되는 짧은 다큐지만 강렬한 메시지와 영상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다. 바쁜 세상에 치어 뒤돌아볼 겨를도 없는 우리들에게 '생각거리'를 던져준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토론 교재로도 사용되기도 했다. 또 '지식 @'라는 책으로도 묶여나와 지금까지 모두 50만권이 팔렸고, 다큐에 사용된 음악만을 따로 묶은 편집음반도 많은 사랑을 받았다. 최근에 나온 '지식 @ 5'는 기존 시리즈에서 확장해 다양한 인물 인터뷰까지 함께 실은 책이다. 이번 시리즈가 주목한 것은 '인간과 인생', 그리고 그 두가지를 통해 이야기 하고 싶은 '인권'이다.

다양한 인물들의 이야기는 프로그램의 핵심이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을 소시민의 삶부터 잊혀진 인물들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이 중요한 삶의 문제인지, 무엇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치인지' 지속적인 질문을 던져왔다. 5년간의 시리즈 중에서 20개의 에피소드를 가려 뽑은 이번 책은 다큐 내용과 함께 각자마다 관련 인사들의 심층 인터뷰를 함께 실었다. 첫번째 에피소드 '초콜릿마의 두사람' 편을 보자. '단 한 사람만을 인정하는 최초의 기회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는 글로 시작되는 첫번째 이야기인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을 앞둔 두 사람의 이야기다. 여왕의 대관식 전에 등정에 성공해야 한다는 사명을 띤 힐러리는 세르파와 함께 정상 정복에 나서고 1953년 5월 29일 11시 30분 세상의 꼭대기인 두 사람이 있었다. 첫번째 사진에는 단 한 사람만이 찍혔다. 이어지는 건 고산기병 등반 전문 산악인 김세준씨와의 인터뷰다. '엄장 가장 가까이 있는 약기인 헬로' 연주자 파블로 카잘스 이야기. 조국 스페인에 파시스트 프랑코 정권이 들어서는 걸

날 수 없는 카잘스는 자신의 무기인 '헬로'를 들고 유럽 각지로 연주를 다니며 세상 사람들을 움직였다. 화가 난 프랑코 정권의 대변인이 라디오를 통해 '팔꿈치에서부터 팔을 잘라버리겠다'는 경고를 보냈지만 그는 '원칙을 지킬 뿐'이라며 연주를 이어갔다. 카잘스의 이야기 뒤에 실린 공연연속가 탁현민의 인터뷰는 '노무현 추모 음악회' 등을 기획했던 그의 이력을 통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 보게 한다. '어떤 스트라이커의 1승'은 한국 축구팬들에게 '천덕꾸러기 집안'이었던 황선홍이 2002년 월드컵 당시 플라타너스 전에서 첫골을 넣은 사연을 담은 에피소드다. 이어지는 축구 저널리스트 서형욱과의 인터뷰에서는 한국 축구의 현재를 생생히 짚어준다. 책에는 그밖에 '전혀 아름답지도, 여성스럽지도 않은' 여자들을 그렸던 케테 폴비츠와 관화가 이철수, 지속가능한 발전을 꿈꾸는 콜롬비아의 생명운동가 인드라망 공동체 상임대표 도보 스톱, 한국의 공교육과 뮤지션 신해철과의 인터뷰 등이 실려 있다. <북하우스·1만2천800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알고 들으면 클래식도 참 쉽죠?

너 음악회 가봤니?

류준하 지음



어렵게만 느껴지는 클래식이 쉽게 친해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 나왔다. 10여년전부터 경주에서 '경주고전문악감상회'를 진행하고 있는 고등학교 지리교사 류준하씨가 쓴 '너 음악회 가 봤니?'는 친절한 클래식 교과서다. 책은 다양한 계층이 모이는 감상회처럼 나이와 취향, 수준이 다른 세 명이 가장 인물을 설정, 대화식으로 이야기를 풀어어나가는 부답이 있다.

지은이를 모델로 한 음악백과 사전 차선생과 진지한 클래식 음악 마니아 배도반, 음악감상 초보자 류수연이 실제 음악감상회에서 나눈 이야기들을 하며 클래식음악에 대해 자연스럽게 설명해준다. 책은 사랑과 역사, 삶과 죽음,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주제로 듣는 음악', 카라얀, 칼빈, 클라우트 등 세계적인 지휘자와 연주자의 이야기를 담은 '거장의 숨결로 듣는 음악', 베토벤, 쇼팽, 말러 등 거장들을 통해 클래식을 알아가는 '작곡가의 숨결로 듣는 음악' 등으로 구성해 있다.

마지막 장인 '지도, 국가로 듣는 음악'은 라틴아메리카의 음악 등 전통 클래식을 넘어 다양한 음악들을 소개한다. <한림사·1만9천500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강요된 죄의식에 고통받는 우리들

사과는 잘해요

이기호 지음



제기발랄한 입담과 기존 소설 언어의 권위를 전복하는 글쓰기로 주목받은 젊은 작가가 이기호씨(37)가 첫 번째 장편소설 '사과는 잘해요'를 펴냈다. 2008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 Daum에 연재되면서 폭발적 호응을 일으킨 작품을 재작하여 단행본으로 엮은 것.

대신 사과를 하는 '사과 대행'이라는 독특한 소재로 사람들 속에 숨어 있는 죄와 죄의식 그리고 부조리한 사회와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설은 자신의 죄를 외면하며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죄를 돌아보라고 경종을 울린다. 소설을 끌고 가는 핵심 주제는 죄와 자백, 죄와 사과의 전도된 모습이다. 작가는 "타인이 나에게 강요한 죄의식이 우리를 괴롭히고, 그것이 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그렸다"고 말했다.

폭력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된 주인공들을 통해 우리가 짓는 죄의 의미와 죄의식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1999년 월간 '현대문학'에 단편 '바니'로 등단한 이씨는 소설 집 '최순덕 성령충만기'와 '갈갈질갈갈하다가 내일 줄 알았지'를 냈으며 광주대 문창과 교수로 재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현대문학·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남도의 젓줄' 문화유산 답사기

영산강

신정일 지음



문화사회학자이자 (사)우리땅꿈기 이사장인 신정일(55)씨가 담양에서 목포까지 영산강을 따라 걸으며 산과 강, 길에 얽힌 이야기 풀어 쓴 문화유산 답사기 '영산강'을 출간했다. '다시 걷는 우리강' 시리즈로 태백에서 남해까지 우리 강토의 절반을 적시는 낙동강 길의 여정을 담은 '낙동강'과 함께 나왔다.

남서쪽으로 흐르면서 광주·함흥·지석천·고막원천·함평천 등의 지류와 합류하는 삼백오십 리의 영산강. 저자는 물소이 길을 걷고 강의 흐름, 자연 풍광과 강변의 문화유산을 생생한 사진 자료와 함께 소개한다. 저자는 자연의 일부인 인간들이 '편리'라는 이름으로 만든 댐이 나 보로 인하여 본디 자연스러운 '물 흐름'의 소리를 잃어가는 것을 아쉬워하며 "물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도 없다"는 이야기를 전한다. 또 지금 우리가 강에 대하여 하고 있는 일들이 최선인지, 차선인지, 아니면 최악인지, 차악인지는 알 수 없으나 다만 이대로 가면 오래지 않아 우리 국토가 물러나듯 변할 것임을 우려한다.

강과 구름이 자연스럽게 흘러보듯 그렇기 우리 인간이 본연으로 돌아가야 할 모습임을 대자연 강을 통해 강조했다. 우리 지역 남도의 젓줄인 영산강을 다루고 있는 만큼 포근하고 친근하다. <침해·1만7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Table with multiple columns: 지역, 소재지, 대외연락처, 강경가, 회계자, 비교, and various financial data for different regions and companies.